

7. 성서의 전승모체

성서가 오늘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데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서는 그 어떤 집단이 계획하고 쓴 것도 아니요, 어떤 역사가나 문필가가 작품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구약을 형성한 그룹은 지금까지는 세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J, E, P가 그것입니다. J란 하느님을 ‘Jahwe’라고 부르고, E는 신을 ‘Elohim’이라고 불렀기에 그 첫자를 따온 명칭이고, P란 사제(Priester)라는 말의 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J는 짐작컨대 주전 10~9세기에, E는 주전 6~5세기쯤이고 P는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있던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자료들을 모아서 재편성하고 또 그 내용을 어떤 목적에 따라 재편집하거나 첨가한 손길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그 편집의 골격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왕조를 재현하려 한, 신명기를 쓴 다윗왕조의 역사가들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다윗왕 중심으로 역사를 미화하여 다윗 이야기와 그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변조했습니다. 저들을 일러 D학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만이 재편집에 참여했다고 보면 잘못입니다.

구약은 1세기 후반에 비로소 경전으로 결정되기까지 많은 손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최후는 바리사이파가 주도하는 라삌들이 로마 치하의 ‘얌니아’라는 데서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읍기와 같은 문학작품을 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史的) 이야기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글로 되기 전에 오랜 구전(口傳)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긴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변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모’라고 하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우나 여기서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전과정에도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첨가되고, 그 해석에는 해석하는 이들의 삶의 정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죽은 아이 나이 세듯 부질없는 이야기의 반복이 아니라 삶에서 실험과정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전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민중이었습니다.

태초에 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야기로 재현됩니다. 이야기는 ‘논리’가 아니라 목격담입니다. 민중의 언어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구전의 모체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민중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서를 읽으면 이야기꾼의 말이나 문장가들의 글처럼 미끈하지는 않습니다. 성서는 무수한 찝찝한 이야기들을 이어놓은 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인데도 그 사이사이를 기운 흔적을 뚜렷이 읽을 수 있고, 반복된 것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J라는 그룹은 그들 나름대로 민중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았고, E그룹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P그룹은 벌써 뚜렷한 목적을 갖고 편집에 임했으며 수정하고 첨가한 것이 눈에 띄는 것을 미루어보아, 꼭 민중의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인정된 자료를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 역시 민중전승을 바탕에 두고 서술적 기교로 그들의 뜻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한데도 역시 그의 죄악사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고, 솔직한 비판의 소리들을 다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 안에 민중의 구전과 상관없이 오히려 사제계급이나 성서전문가들이 어떤 어용적 목적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민중을 세뇌시키고 그 내용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

다. 그런 경우는 신약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8. 신약성서 성립

신약은 주후 50년대에서 120년 사이에 성립된 문서로서 구약보다는 그 전승과정이 훨씬 단순합니다. 구약은 민중의 갈망을 반영하는 신(神)이 중심이면서도 그 주제와 관심이 다양하고 또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임에 비해, 신약의 주제는 한 초점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 저자에 의해 씌어진 글들이 모아졌어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역시 그 시대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책들마다 그 시대의 사조에 도전하거나 타협한 흔적이 농후하며, 전승주체에 따라 예수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앞에서 거듭 말해온 대로 마르틴 루터는 신약해석의 ‘사도적 권위’를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예수와 더불어 행동한 이른바 사도들의 글은 단 한 줄도 없습시다만 그들을 따른 자들은 각기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바울로의 편지들입니다. 초기에는 13개까지를 그의 편지로 알고 있었으나, 많은 비판적 과정을 거쳐서 그의 편지는 일곱 개뿐이라는 것이 정설(定說)로 되었습니다. 그 외에 바울로의 이름으로 된 짧은 편지들은 바울로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글의 권위를 위해서 바울로의 이름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로의 이름으로 된 2차적인 편지들을 편의상 ‘제2바울로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마저도 내용에는 바울로